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중공지역화 방지를 위한 은총의숲 만들기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사순절 5주 】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거룩 거룩 거룩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43(57). 즐겁게 안식할 날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창조의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죽음에서 생명을 만드시는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맨땅에는 새싹이 올라오고 메마른 나뭇가지에는 새순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새롭게 만들어주십시오. 진정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봄의 새싹처럼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사순절을 지내며 세례를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소망하며, 진실하게 자신의 지난날을 돌아보는 이들을 어여뻐 여겨주십시오. 자신의 허물과 약한 믿음에 실망하기도하지만 주님의 따뜻한 사랑에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세례를 준비하는 이들을 보며, 다시 한 번 자신을 돌아보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렘31:33 인도자

♠ 교 독 문 128. 사순절(5) 다함께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대표기도 I. 장성호 선생 II. 한상익 장로

응 답 송 찬양대

찬 양 327(통361). 주님 주실 화평 다함께

성경봉독 I. 눅3:3-15 김제우 학생

..... II. 요13:1-10 안홍숙 권사

찬 양 찬양대

말 씬 I. 봄은 어디쯤 김재홍 목사

..... II. 동고동락(同苦同樂)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함께

- 찬 양 442(통499). 저 장미꽃 위에 이슬 다함께
- ♠ 봉 헌 317(통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담임목사
- 공동체 소식 담임목사
-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과 기쁨을 함께 하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해야함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땀 흘리는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주님과 동행할 수 없는 이유를 둘러대며 선뜻 주님의 손을 붙잡지 못하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 주님과의 거리두기를 그만두겠습니다. 이웃을 향해 가지고 있던 완고한 잣대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주십시오. 아멘

-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함께
-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집회
선교회별 모임	빌립보서 공부
	기도: 곽상준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성운 전도사	오재환 선생	염철민 학생
	김기석 목사	김인걸 장로	허호범 집사

3월	영접위원	김인걸 하정석 김대근 이명희 문영혜 오자영
	헌금위원	윤석철 박성실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침묵, 언어를 넘어선 위대한 소통

땡. 땡. 땡. 종소리가 울린다. 어둠의 긴 적막을 깨고 사방으로 메아리치는 종소리는 계곡을 따라 산속으로 흩어진다. 도시에서 느끼지 못했던 고요함이 숲속에 가득 넘칠 때쯤, 수도원의 방마다 불이 켜지고 사람들이 하나 둘씩 예배실로 향한다. 깊은 밤 침묵 속에 홀로 머물며 기도하던 이들. 일상의 바쁨을 내려놓고 저마다 그 무엇을 찾아 이곳을 왔는지. 너무 많은 말을 하고, 들어야 하는 우리의 삶. 그 소리의 포화에서 잠시 빠져나와 ‘언어와의 결별’을 경험하기 위한 은성수도원에서의 첫 아침은 그렇게 찾아왔다.

아직 동터오기 전, 캄캄했던 예배실은 불이 켜지고 찬송이 흘러나온다. 고요했던 산골에 하나님을 향한 외침들이 부딪히다 서로의 가슴 속으로 파고든다. 수도원에서 침묵이 깨어지는 유일한 시간. 온 맘 다해 그분을 찬양하며 서 있는 지금은 사람의 존재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나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며 서로를 발견해 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깨달음의 여운으로 가득해진 예배실은 또 다시 긴 침묵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한참이 흐른 뒤에 창문 틈으로 아침이 찾아왔다. 방으로 돌아왔다. 영열산장(靈悅山莊). 비탈진 계곡 위에 자리한 작은 암자의 이름은 영혼의 기쁨이 넘치는 침묵의 공간이다. 두 평 남짓한 작은 방은 계곡 쪽으로 난 창문과 책상 하나를 가졌다. 사실 더 필요한 것도 없고 가질 이유도 없다. 더 가지는 삶보다 있는 것을 누리는 삶이 행복한 것 아닐까. 작은 방에 발을 뻗고 누우니 풍족함을 위해 몸부림 쳤던 지난 시간들이 부끄러워지다가, 이내 평안함이 밀려온다. 하나님과 함께 머물 수 있다면 이만한 공간도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창문으로 파고드는 한줄기 빛이 방안을 밝히고 그 틈으로 새들의 지저귀음과 계곡을 흐르는 물소리가 들어왔다. 자연과 소통하는 것도 작은 창문 하나면 충분했다. 홀로 있는 외로움보다 함께 있는 외로움이 더 커져버린 현대인의 삶에서 서로를 향해 마음의 창문을 조금씩 연다면 서로가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될 텐데. 창문으로 들려오는 자연의 소리에 나

또한 그들과 함께하는 작은 존재임을 발견한다. 침묵은 들리지 않던 소리를 듣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다.

(.....)

점심 후 오후시간. 기도가 노동이고 노동이 곧 기도라던 수도원의 영성처럼 오후에는 노동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 당일에는 할 일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지난번 노동시간에는 양파와 마늘 까는 일을 했다.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모습을 하나씩 벗겨내는 마음으로 해주세요. 옛 사람의 존재를 하나 둘 벗겨내다 보면 여러분의 내면 깊숙이 자리잡은 본래의 모습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에 당황하지 말고 정직한 눈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새로움으로 옷 입도록 하세요.” 방문자들과 함께 양파를 담은 소쿠리에 모여앉아 껍질을 벗겨냈다. 얇은 껍질을 벗겨내고 상처 난 부분을 도려내니 흰 속살이 나왔다. 그렇게 말없이 양파를 손질하고 있을 때 함께 일하던 어떤 이가 갑자기 뛰쳐나갔다. 또 다른 이는 한참을 멍하니 양파만 바라보다가 고개 숙여 운다. 정직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간. 하나 둘 벗겨지는 자신의 모습에 깊은 탄식과 함께 감동이 밀려온다. 스스로를 포장했던 껍데기를 벗겨내자 너무나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리고 흐느끼는 영혼들의 깊은 울음들이 서로에게 메아리친다.

저녁식사 후 함께 모인 성만찬 시간.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누고 아이티를 비롯해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연약한 이들을 위해 중보했다. 그리고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라고 서로에게 인사하며 악수했다. ‘우리는 진정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간다’던 성 어거스틴의 말처럼 함께 있음에 감사하며 행복해했다. 자신을 발견하러 올라왔지만 모두와 함께 있음을 깨닫고 돌아간다. 나를 바라보는 시선보다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에 익숙했던 우리들. 자신의 존재를 깨닫기 위해 타인의 시선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스승이며 안내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밤은 깊어갔고 고요한 평화가 넘쳐났다. 새벽 동이 터올 무렵 또 다시 종소리가 울린다. 내면을 곱게 물들일 영혼의 종소리를 따라 침묵의 여정에 몸을 맡긴다.

몸짱 씨앗

이정인(아동문학가)

요것 좀 봐!

잠자는 척하면서
팔운동
다리운동
숨쉬기운동
부지런히 했던 거야.

안 그러면
이 쪼그만 게
흙덩이를 번쩍
어떻게 들 수 있었겠어?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김아영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 헌금영수기 ◇

십일조헌금:

윤정덕 구성실 김철수 유영남 한완식 임정자 김정길 최숙화 김혜권
 박재임 박지인 박창운 허정윤 윤미경 임주빈 최현옥 전월수 정복순
 김정애 원인해 조현권 박병구 김민화 권채영 박권동 이광용 형인순
 이성운 김영순 오진훈 노순옥 김필순

월정헌금:

고숙이 권미정 권혁순 박혜경 김남홍 선우영 김미순 김현영 정원석
 배부례 김정섭 송임희 이갑재 이은자 이봉배 유지은 최윤희 박인혁
 권 순 나승철 문홍일 정연희 정완수 김재광 무명

감사헌금:

양재성 임미심 김용길 최영혜 정복순 곽새롬 김필순 박창운 허정윤
 하재두 김남홍 선우영 정재윤 정미경 이인웅 오송경 무명4

녹색꿈헌금:

곽상준 최경미 이재문 박병구 김정애 문복순 양인하 김남홍 선우영

생일헌금:

김혜영 윤수진

속명	인도자	속장	모인곳	다음장소
예루살렘	장혜숙	박성실	정두리	조순덕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정경례	서정순
안디옥	임정자	최경미	이은옥	차혜심
가나안	문영혜	이명희	김진경	이명희
갈릴리	안정숙	진정숙	문금석	박옥순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김순복	백묘현
시온	박효선	허정윤	김정애	박효선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최희정	권미정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김금순	오복순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권미숙	김필순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안홍숙	오현정
나사렛	정영선	백혜숙	김희우	백혜숙
갈라디아	유경순	김수진	송양진	김혜권
고린도	이영란	이증자	배삼순	윤정화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임창선	정현숙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사순절** : 사순절 다섯째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순례의 여정에 더욱 진실한 마음으로 임하십시오.
2. **선교회** : 오늘 오후집회는 선교회별 모임입니다. 회장은 모임 후에 보고서를 사무실에 제출해주십시오.
3. **속장 인도자 모임** : 속장 인도자 모임이 2부 예배 후에 3층 유아실에서 있습니다.
4. **세례입교교육** : 오늘 오후 3시부터 <사무실2>에서 세례 입교를 위한 두 번째 교육이 실시됩니다.
5. **강순례** : 기독교환경운동연대가 주관하는 ‘생명의 강 걷기’ 행사가 27일(토) 두물머리 일대에서 있습니다. 용산역(중앙선)에서 오전 9시에 출발합니다.
6. **종려주일** :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7. **고난주간기도회** : 고난주간 동안 부서별 주관 기도회가 열립니다. 기도하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8. **신청 및 판매** : 생협에서 ‘사과나무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유정란을 판매합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주세요.
9. **담임목사** : 22일부터 24일까지 인천 성린교회(기장)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 식당 봉사 : 안디옥 속 (다음 주 : 안디옥 속)
 * 설거지 봉사 : 정희은 김주일 권혁신 (다음 주 : 장재영 김재영 이준하)
 * 새교우 : 유은정 (청년부)

예배 안내

1. 예배 시작 10분 전에 와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2. 예배실 앞자리부터 앉습니다.
3. 기도 중에는 출입을 삼갑니다.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